

# Attention

---

그 첫 번째 이야기

제 3 대 컴퓨팅공학과 여학생회

# Attention

---

그 첫 번째 이야기

제 3 대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

# 차례

㉠ 기획기사 .....	7	
㉠ 만나보았습니다 .....	24	
상우 조선대에서 온 글 .....	조선대 93 홍수희 .....	26
㉠ 졸업생 언니가 후배 여학생들에게 .....	28	
㉠ 우리들의 글 .....	30	
상우 여학생회 한학기를 돌아보며 .....	94 심현지 .....	31
상우 지금 당신은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	95 서연경 .....	33
상우 “대륙의 딸”을 읽고 .....	94 강소영 .....	35
상우 나의 세상보기 .....	94 석상숙 .....	37
상우 정신대 할머니를 뵈고 .....	94 이현영 .....	40
상우 나름의 결혼관을 갖자 .....	93 손미향 .....	42
상우 복학생이 보는 여학생 .....	90 오형식 .....	44

상우 남자들은 모두 미쳤다!!! .....	94 이현영 .....	46
상우 개같은 날의 오후에 늑대들이 모두 미쳤나봐요. ...	94 김병준 .....	52
❶ 영화 이야기 .....		59
상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	89 홍상영 .....	60
상우 위험한 독신녀 .....	94 이진숙 .....	63
상우 영화 동사서독은.... .....	94 김명신 .....	64
상우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 와 페미니즘 .....	95 박정호 .....	66
❷ 생각해 봅시다. ....		68
❸ 앙케이트 .....		74
❹ 편집 후기 .....		77
❺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칙 .....		79

## 여학생회장 인사말

여학생회장 94 심현지

### 행복

십사리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커다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고 받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  
언제나 흐뭇하고 풍요로운 생활임을 알기에  
마음을 깨끗한 종이에 담아 보내주는  
향그러운 친구가 있는 그대  
스스럼없이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의사 같은 친구가 있는 그대  
메마른 땅위에 뿌려지는 단비를  
맞고서 있는 저 가로수보다도  
훨씬 수지맞는 삶인 걸 알았으면 합니다.  
친구의 고마움을.

여학생회에서 회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여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구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교실에 앉아 있기조차 힘든 때가 왔네요. 그래서, 선배,  
동기,후배들로 가득하던 5호관 로비도 사람들 찾아 보기가 힘들구요. 한해가  
끝나간다는게 실감나지 않네요. 기분 좋게, 주위사람들과 함께 1년을 잘 마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여학생회지 창간을 축하하며

어느 때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작금에 여학생회지를 창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 21세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정보 혁명이전의 시대에는 육체적 근력이 생산력의 원천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인력이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비록 증기 기관의 강력한 힘이 동원되었습니다만 사람의 힘이 산업력의 곳곳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들이 생산력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체적인 힘은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단지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분석력, 창의력, 예측력 등이 더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인류 역사에서 어찌면 처음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 자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 등에서의 성차별은 아직도 심심치않게 거론되는 숙제입니다. 한편 우리 여성들에게도 조금은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일이 넘쳐 야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사 일을 핑계로 퇴근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는 것, 결혼과 동시에 아무런 미련없이 사표를 내는 것 등은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가 되게 합니다.

여하간 여성은 우리 사회의 절반을 이루고 있고 또한 절반이상을 책임져야합니다. 다시 한번 여학생회지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5.11.11

컴퓨터공학과장  
김승호

## 여학생회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학생회장 93 박노삼

요즘 대학가와 컴퓨터 통신에는 온통 급진적인 성해방론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Rape me! 날 강간하라!”라는 주제의 ‘성정치 문화제’, PC 통신에서의 ‘창녀론’(김완섭)과 ‘기생충론’(신모라)은 이미 많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김완섭의 창녀론은 남성우월주의의 관점에서 여성이 가진 생산력은 오로지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 밖에 없으므로 여성이 창녀정신으로 무장하여 생산력을 극대화시켜 남성을 지배하자는 것이고, 신모라의 기생충론은 “남성은 여성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처녀성의 유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도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처녀성을 버리고 많은 성경험을 통하여 성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2월 [말]지 참조)

이 양자의 논의는 모두 남녀사이의 관계를 단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여성에 대한 관점 또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슬이 사회를 향해 진출하려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모습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여성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한 구조를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진정 여학우들의 개인 의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남녀평등이란 여학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들 또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대에서 느끼는 우리과 여학우들의 불평등 또한 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장벽을 넘어서는데 여학생회가 여학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학생회지는 단순한 책한권이 아니라 기간의 성과를 모아내고 앞으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여학생회의 산물이 아닌가 합니다. 여학생회가 진정 새로운 면모로 과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학생회지를 만드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거듭 여학생회지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기획기사

역사에 묻힐 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민족의 아픔이며  
시대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 정신대문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정임

위. 안. 부.

누가 역사의 수렁속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대들 이름 잊으라

무명의 그대들. 빛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온몸으로 온몸으로 치받았거니

무시무시한 정글속

진흙 구덩이

포탄 속을 헤쳐가며

그대들 때론 탄약운반원

그대들 때론 부상병 임시간호원

.....

그대들. 하룻밤 수십명의 왜놈들

날카로운 성기의 창끝에 찔려

아랫도리 피고름으로 아물날 없고  
결국 성병으로 말라리아로  
나무토막처럼 픽픽 쓰러져 갔다지  
컴컴한 지하 방공호 속에 갇혀  
누가 그대들 무참히 짓밟았는가  
가슴 속 피맺힌 한을 품고  
누가 그대들 가슴에 자결의 비수 꽂게 했는가  
그대들의 상처받은 자궁  
민족의 자궁  
처절한 그대들의 이름  
위. 안. 부.  
우리들의 어머니  
매춘관광 꽃바람 타고  
외화획득 경제성장 역군되어  
식민치하 가난에 몸을 떨던  
취안부의 어린 딸들  
대한의 딸들  
오늘 또 다시 엔화에  
목숨같은 몸을 파누나  
끝도 없는 역사의 수렁 속  
상처의 억압과 수모  
죄악과 죽음  
차별과 한만이

*Attention...*

---

그대들의 이름이라고

착취의 그늘

수치와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그대들의 숙명이라고

.....

누가 말하는가

우리들의 어머니

위. 안. 부.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시여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 36년의 치욕을 겪었다. 남자들은 끌려가 노예적 강제 인력수탈을 당했고 여성들은 정신대의 미명을 붙여 감언이설로 또는 강제로 끌려가 군대 위안부가 되어 일본군의 성적 처리대가 되었다.

정신대 문제는 일본군의 고의적 자료폐기와 당사자들이 경험을 숨기는 경향, 전반적 연구 부족으로 역사에 묻혀 있었다. 1980년대초부터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1년 여름, 일본군 정신대 출신의 김학순할머니가 이름을 밝히며 자신의 체험을 말함으로써 더이상 숨기거나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게 생각하며 짧게나마 여기에 실는다.

### 정신대 개념규정과 위안부의 실상

약간의 개념규정으로 시작해야겠다. 정신대, 종군위안부 등의 말이 혼용되고 있는데 정신대는 당시 조선 뿐아니라 일본내에서도 행해졌고 남자, 여자를 모두 포괄하였던 것으로 근로정신대, 인솔정신대, 보도정신대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종군위안부도 정신대라는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다시 위안부로 강제된 경우도 있었다. ‘종군’이라는 말이 자발성을 내포하므로 ‘군대위안부’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할수 있으며, 여성들이 받은 피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일본군 전용 성노예’라고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는 1930년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남경대학살사건’이후 일본군이 저지른 중국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간사건이 반일감정으로 나타나자 일본군부는 위안소 설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조선총독부와 함께 대대적인 ‘종군위안부 사냥’을 행하였고 현재 위안부 수를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안부의 대부분이 조선여성이었으며 일본인, 대만, 중국, 필리핀인 등도 있었다. 일본에서의 동원은 직업매춘 여성에 국한했던 것에 비해 조선여성의 동원은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하류층을 대상으로 강제 및 사기방식에 의해 동원되었다.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은 엄중한 감시망 속에서 은밀한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에 3-40명을 상대했고, 빨래, 청소, 취사, 간호보조등 군대잡부의 역할도 같이 하였다. 정기적인 검진을 건강치 못한 경우 치료받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

아 위안부 생활 중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정신질환을 겪은 경우도 많았다.

보수로 상대군인에게 전표를 받았으나 해방후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간혹 돈으로 받았던 경우 상당액의 저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일본의 패전후 상당수의 위안부들이 유기되거나 사살당했으며 이동 중에 죽었다. 혹은 미군에 점령되면서 수용소에 있다가 귀향한 경우도 있으나 귀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일본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우리민족의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우리민족전체를 정신적으로 파괴하였으며, 오늘날 일본의 국가권력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사죄없이 오만한 위로금으로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우리민족을 파괴하고 있다.

###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종전후 50년이 지났으므로 법적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968년 11월 26일 유엔총회는 찬성 58, 반대 7로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바 있고, 1974년 1월 25일 유럽 이사회는 자체의 「인도에 대한 죄 및 전쟁 범죄에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유럽협약」을 채택하여 서명에 개방한 바 있다.

1965년 6월 26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인에 가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정부가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재산의 반환이나 한국국민에 대한 채무의 변제의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6차회담때 부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그동안의 협상의 방향을 전환한 끝에 정치적 타협을 한것이 65년 협정인것이다. 65년 협정은 경제협력자금지원협정이며 일본이 전쟁 및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한국민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금을 책정하여 종결하기로 한 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은 인도에 대한 죄이며, 기본적 인권에 대

한 침해이고 동시에 강제매춘 금지에 대한 위반이라는데 있다.

인도에 대한 죄는 2차 대전 후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와 일본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제정된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그리고 양군사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인도에 대한 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쟁전 또는 전쟁중 주민일반에 대해 자행된 살상,잔혹,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인도적 행위,또는 범행지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 라는 것이다. 정신대는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와 관련된다.

정신대는 여성의 정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일,특히 매춘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매춘하는 일이 반인륜적임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금지가 나타난 국제협정은 1910년 채택된「백인노예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21년 체결된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49년 채택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의 방지를 위한 협약」 등 이다.

또한 정신대 문제는 국제강행 규범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대세적 의무에 대한 위반기에 국내법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지난 2월 초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처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를 대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으로 10억엔 정도를 국민모금으로 조달하는 한편 정부는 홍보,사무비 등으로 5억 엔을 보조한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아무런 진상규명없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위로금’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가해자를 미화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인의 경제적 동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위로금을 받아들이는 경우 일본의 만행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일본의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도록 조장시키는 것이 된다. 민간위로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

## Attention

이고 모독이다. “위로금은 너의 일본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은 절규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책임을 부인해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마지못해 국가의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진상을 적극적으로 조사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사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상에 앞서 정부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여, 제도적 정책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에 기반하여 일본 천황과 정부 국회의 사죄를 공식문서화 하며,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배상하여야 한다.(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불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발족하여 현재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과 한국정부에 대한 활동, 국제연대와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희생자 중심의 태평양유족회나 정대협에 소속된 몇 회원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전체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체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전반의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며, 학계도 체계적인 자료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신대문제를 소수의 여성단체 중심의 외롭고 가난한 싸움에 맡겨두는 것은 일본정부의 역사매몰, 역사의 책임회피에 공범이 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어느 신문에 실린 “할머니가 변장한 사연”이라는 글을 실으며 이글을 마칠까 한다.

도쿄의 중앙관청이 목려 있는 가스미가새키에 있는 도쿄지방 재판소의 713호 법정.1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이 법정에서 한국인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이 낸 보상소송의 첫 공

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들어 온 뒤 정리가 2분 정도 텔레비전 카메라기사의 촬영이 허용되니 화면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은 잠시 나갔다가 촬영이 끝난 뒤 다시 입장해도 좋다고 알렸다. 이런 알집이 통입을 통해 전달되자 원고석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일어나려다 주위의 띠류로 주저앉았다.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색안경을 낀 이 할머니가 이날 법정에서 사용한 이름은 '가네다기리코'다. 물론 본명이 아니고 종군위안부로 끌려갔을 때 일본군이 붙여준 이름이다. 이날 법정에서 대표로 증언을 한 3명의 원고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 할머니는 거의 숨이 끊어져가는 듯한 목소리로 '이 세상은 다 모르고, 하늘이나 땅이나 알'사연을 30분쯤 털어놓았다. 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산으로 도망간 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되자 남의 집에 얹혀 살던 그는 17살때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떠나나섰다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처리해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아편중독, 자궁제거수술 등 온갖 고초를 겪은 그는 지금도 안정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 땅을 다 준다 해도 내 땅가진 몫, 내 청춘을 되찾을 수 없다"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비참한 나 자신의 신세가 서러울 뿐"이라고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남의 집안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이따금 하연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가네다 기리코' 할머니는 지금도 누가 알아볼까봐 '변장'을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원청사 앞에 있는 변호사회관 3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할머니는 카메라기사의 공세를 피해 얼굴을 손으로 가리거나 옆으로 돌리곤 했다. 누구보다도 더 심한 전쟁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다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주위 사람이 알아볼까봐 신경을 써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것이 전후 47년이 넘은 세월 동안 종군위안부문제를 방치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는 것과는 달리 과연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 글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근위 안부들>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1928년 대구 출생하셨고, 가난한 집안의 고명딸로 달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집안이 어려워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유모일 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키우다가 조면 공장에 다니기도 했으며, 일본인의 핏에 빠져 친구와 함께 떠났다가 대만에 있는 근위안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 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나는 1928년 1월 13일 지금의 대구직할시 북구 고성동에서 가난한 집안의 고명딸로 태어났다. 가족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위로 오빠 하나, 그리고 남동생이 넷으로 모두 아홉 식구였다. 나는 달성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안이 어려워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둬야 했다. 그리고는 열세 살 때 야학에 조금 다녔다. 야학에 다닐 때는 ‘야스하라 리오요슈’라는 이름을 썼다. 풍금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일본말도 배웠다. 나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노래부르는 것은 좋아했다. 야학에서 가르치는 일본인 남자 선생님도 나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했다. 1년 가량 다녔지만 공장에 다녀와서 밤에 나가야 하니까 빠지는 날이 많았다.

#### 엄마 대신 동생들을 키우며

어머니는 수정보통학교 앞에 사는 부잣집에 유모로 가 있었다. 그래서 동생들은 내가 키웠다. 우리가 살던 집과 부치는 논밭은 모두 어머니가 유모로 가 있는 부잣집의 것이었다.

아홉 살부터 열세 살까지는 칠성동에 있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면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조면기에 목화를 넣어 솜을 타는데 먼지가 아주 많이 났다. 어느날은 기계에 사람이 팔려들어가 머리가 깨지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고는 무서워서 공장에 가

기가 싫어졌었다. 그러나 공장에 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었다.

만 열다섯 살 때에는 동네에 있는 칠성국민학교에서 정신대 훈련을 받기도 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줄을 서서 체조도 하고, 열을 똑바로 서서 걷는 훈련도 받았다. 집으로 올 때도 줄을 서서 돌아왔다.

1944년, 내가 만 열여섯 살 때 가을의 일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미창(米倉)에 나가서 쌀을 저나르는 잡역부로 일하고 있었다.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그 집에 놀러가니까 그 어머니가 “너 신발 하나 옳게 못 신고 이게 뭐냐, 애야, 너 우리 분순이하고 저기 어디로 가거라. 저기가면 오만 거 다 있단다. 밥도 많이 먹을 거고, 너희집도 잘 살게 해준다”라고 했다. 당시 내 옷차림새는 헐벗고 말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분순이랑 강가에 가서 고동을 잡고 있었는데, 저쪽 언덕 위에 서 있는 웬 노인과 일본 남자가 보였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니까 남자가 우리쪽으로 내려왔다. 노인은 곧 가버리고 남자가 우리에게 손짓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무서워서 분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새벽, 분순이가 우리집 봉창을 두드리며 “가만히 나오너라”하며 소곤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 통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을 입고 계다를 끌고 있었다. 가서 보니 강가에서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였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통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통이를 살짝 들쳐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 나까지 합해 처녀가 모두 다섯명이었다.

그 길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갔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았다. 경주에 가서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 여관 앞 개울가에 세 손을 씻고 있는데, 산비탈에 보라색 꽃이 한송이 피어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이어서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니까 도라지꽃이라고 했다. 거기서 이튿밤인가를 지냈는데 또 여자 두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여자가 모두 일곱 명이 되었다. 경주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를 지나가게 되었다. 달리는 기차의 깨진 유리 차창 저편에 우리집이 보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난 우리 엄마에게 가야 한다고 하면서 막 울었다. 옷보통이를 밀치며 이거 안 가질테니 집에 보내 달라고 하며 계속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굶아떨어졌는데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다. 여러 날을 간 것 같다.

### 빗발치는 매기 무서워서

평안도의 안주라는 곳에 내려 어느 민가에 들어갔다. 안채와 아랫채,곳간이 있고 방이 넷인 초가집이었다. 그 집에는 노파 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노파는 항상 몸빼와 긴 적삼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 거기도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밥을 안주고 감자와 수수를 삶아서 줬다. 하도 배가 고파서 허기를 달래려고 사과를 훔쳐먹기도 했었다.

대구에서부터 우리를 인솔해 간 일본인 남자는 처녀들 중 누구라도 조금만 잘못을 하면 모두 벌을 세웠다. 뒷병짜리 병에다 물을 가득 넣어 가지고 양손에 들고 방망이를 던고 서 있는 벌을 세우거나,다듬이 방망이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 물을 떠오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늦게 가져가면 두들겨맞았다. 질핏하면 때렸기 때문에 맞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는 안 맞으려고 눈치껏 움직였다.

날씨가 추워져 땅이 얼고 매운 칼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밭에서 무를 뽑아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오는 일을 거의 매일 했다. 얇은 홑옷을 입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춥고 손이 시렸는지 모른다. 우리가 춥다고 하면 그 남자는 또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 몰래 언 손을 녹이며 오들오들 떨곤했다. 안주에서는 나중에 온 여자 두명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려 처음의 다섯 명만 남았다. 거기에서 한달쯤 지내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대련까지 갔다.

대련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찰빵과 국물을 주었다. 배도 고팠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대련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함께 뜨는 배가 11척이라고 했다. 아주 커다란 배였다. 우리는 맨 마지막 배에 태워졌다. 배에는 일본 해군들이 아주 많이 탔다. 그 배에 탄 여자는 우리들뿐이었다.

배에서 1945년 양력 설을 맞이하였다. 상해에서 배가 쉬어 갔는데 군인들은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 여자들은 내리지 못하게 했다. 나에게 군인들이 모여 있는 갑판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 장교가 찹쌀떡 두개를 주었다. 나는 그 찹쌀떡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배가 다시 출발했는데 폭격이 심해서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했다.

그러다 어느날 밤에 폭격을 맞았다. 다른 배는 다 부서지게 되고 우리 배도 앞쪽에 폭격을 당해서 아수라장이었다. 밖에서도 죽는다고 야단이었다. 배가 몹시 출렁거리어서 나는 배멀미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구토를 하면서 기다시피하여 화장실에 갔는데 한 군인이 어디로 나를 끌고 들어갔다. 나는 뿌리치며 그의 팔뚝을 물어 뜯고 빠져 나오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후려치며 우격다짐으로 집어쳐넣는데에는 어린 나로서 너무 힘에 부쳤다. 그렇게 끌려가 그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남자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뭐가 뭔지도 몰랐다. 저 남자가 이럴려고 데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을 뿐이었다.

배가 부서져서 다 죽게 되었다는 소리도 들렸다. 구명복을 입고 누워 있으라고 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배는 용케도 항해를 계속했다. 그 일은 나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분순이나 다른 여자들도 나처럼 군인들에게 당했다고 했다. 그후로 그 배안에서 우리는 수시로 군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당해야만 했다. 나는 늘상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는 어려서인지 겁을 먹고 덜덜 떨기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분하고 가슴이 떨리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다. 무섭고 겁이 나서 군인들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어느날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배의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뛰어내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퍼런 물이 거칠게 파도치는 것을 내려다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차마 몸을 던질 수가 없었다.

### 전기고문에 정신 잃고

대만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려 걸으려고 하니까 아랫도리가 내몸이 아닌 것같이 느껴졌다. 사타구니에 가래뿔이 생기고 피가 엉겨붙었다. 밀이 많이 부어서 다리를 어

## Attention

---

무릴 수가 없어 어기적거리며 걸어갔다.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여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렸다. 분순이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았고, 다른 여자들도 열여덟, 열아홉, 스무살 정도 되었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덩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주인은 지독하게 독한 놈이었다. 그는 전화 코드를 잡아 빼서 그 줄로 나의 손목, 발목에 감았다. 그리고는 “고노야로”하며 전화통 손잡이를 마구 돌렸다. 나는 눈에 불이 번쩍 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짹짹 빌었다. 그리고 또 한번 전화기를 돌릴 때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물을 끼어 엮었는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위안소는 일본식으로 지은 2층집이었는데 방이 20개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니 이미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우리보다 나이가 들어보이는 여자들이 10명쯤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일본 여자도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인의 부인이었고 첩은 조선여자였다. 주인은 부인이나 첩도 걸핏하면 두들겨 했다. 우리들은 먼저 온 여자들은 언니(네상)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언니들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언니들의 빨래와 밥도 우리가 돌아가며 해주었다. 거기도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차조죽이나 흰죽을 주로 먹었다.

위안소의 방은 아주 작았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크기였다. 문에는 포장을 쳐놓았다. 벽은 판자이고, 바닥은 나무판인데 아무것도 깔지 않았다. 군용담요 한 장을 가지고 맨바닥에서 지냈다. 어느날 위안소에 들어온 군인이 낭게 이름이 무엇이나고 불었다.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 있을 때라 나는 그냥 구석에서 고개만 저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은 “내가 네 이름을 지어주지”하며 ‘도시코’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나는 그것에서 ‘도시코’로 통했다.

우리들은 주로 독코타이를 상대했다. 그들은 우리 사정이라고는 눈썹만큼도 봐주지 않았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왔지만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었다.

하루 평균 네다섯 명의 군인을 받았다. 군인들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하고 갔다. 자고 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월경을 할 때는 헌옷을 빨아서 사용했다. 월경을 해도 군인들을 받아야 했다. 돈은 구경도 못했다. 공습이 심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피난을 가야 할 때도 있었다. 폭격이 있으면 산에도 숨고 굴 속에도 숨었다. 그러다가 잠시 잠잠해지면 발이고 논이고 아무데나 포장을 쳐놓고 군인들 받기도 했다. 바람이 불어 포장친 것이 후닥닥 넘어져도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다 마쳐야 돌아갔다. 개,돼지만도 못했다.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샷쿠라는 것도 몰랐다.

어느날 지하 방공호에 내려가 있었는데 폭격을 당해 집이 내려앉았다. 방공호 위로 흙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한참 팠더니 조그만 구멍이 나왔다. 너무나 반가워 ‘아이고 밖이 보인다’하고 내다보다가 무슨 연기를 맡았다. 그랬더니 입으로 코로 피가 쏟아졌다. 그리고 나니 정신이 없었다. 그 폭격으로 주인의 첩과 위안부로 있던 키가 크고 얼굴이 길죽한 박씨가 죽었다. 집이 무너졌으니 산 밑의 방공호로 피난을 갔다. 거기서도 또 군인을 받았다. 그러다가 열기 설기 다시 집을 지었다. 집을 다시 짓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서 계속 군인을 받았다. 그러다가 성병에 걸렸다. 주인이 불그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주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

폭격으로 방공호에 가는 것말고는 감시가 심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위안소 밖으로 나가면 때린다고도 하고 죽인다고도 해서 겁이나고 나가지도 못했다. 독코타이들은 전부 젊었다. 나이는 대개 열아홉, 스무 살 정도였다.

### 주로 독코타이를 상대하며

어느날 저녁 한 군인이 왔다. 그는 자기가 오늘 가면 죽는다고 했다. 나는 “독코타이가 뭐하는 거예요?”하고 물었다. 비행기 한대에 두명씩 타고 가서 적의 배나 기지를 육탄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진과 스턴 비누와 수건 등 세면도구를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는 전에 두어 번 나에게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내게서 성병을 옮았다고 했다. 그 병을 내가 주는 선물로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용감하게 이륙한다. 신죽(新竹)을 떠나서  
금파(金波), 은파의 구름을 넘어  
같이 배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 주는 사람은 도시코뿐이다.

그때까지 나는 그곳이 대만의 어디라는 것만 알았지 확실히 어딘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래를 가르쳐줘서 거기가 대만의 ‘신죽’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피난을 가면 사탕수수를 훔쳐먹었다. 워낙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다 들키면 또 매를 맞았다. 거기에서는 조선말을 쓸 수가 없었다. 조선말을 썼다가는 주인에게 얻어맞았다. 그런데 어느날, 통 말없던 먼저 온 여자 하나가 “나도 조선 여자다”하며 조선말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 울었다. 그 언니는 “어떻게든지 꼭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가거라”하며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밖에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을 알게 되었다. 정신을 수습하고 보니 주인과 먼저 온 여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부둣가에 있는 창고같이 생긴 수용소로 갔다. 주먹밥을 줬는데 바구미가 시커멓게 들어 있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배를 기다렸다. 거기에서 나는 또 누가 와서 붙잡아갈까 봐 담요를 뒤집어쓰고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도 노상 울어서 눈이 부어 가뜩이나 작은 눈이 들러붙어 있었다.

### 내 정춘을 돌려다오

배가 부산에 닿았을 때는 보리가 파랗게 올라올 무렵이었다. 부산에 내리니까 우리에게 DDT를 뿌렸다. 그리고 돈 300원을 주었다. 그때 귀국한 사람은 분순이와 동똥한 여자, 또 하나, 나 이렇게 모두 넷이었는데 부산에서 헤어졌다. 기차를 타고 대가로 갔다. 기차 안에서도 누가 또 잡아갈까 봐 눈에 안 띄게 몸을 웅크리고 구석에 숨어 내내 울면서 갔다. 우리집은 다 찌그러진 초가집 그대로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하면서 실신했다.

나는 시집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무슨 양심으로 시집을 가겠는가, 성병 때문에 최근까지도 고생을 많이 했다. 가족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왔는지 몰랐다. 아버지는 딸 하나 있는 게 시집도 못 간다고 한탄을 하셨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 있는 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눈을 감는다고 애통해했다. 대구 향촌동의 오뎅 파는 술집에 종업원으로 오래 있었다. 울산의 해수욕장에서 3년쯤 장사를 하기도 했다. 또 포장마차도 해봤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보험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요즘은 나이도 많아서 그만두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사실을 모르는 동생들은 나이든 누나가 혼자 사는 것을 딱해했다. 주위에서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성가시기도 하고 나도 여자로 태어나소 면사포 한번 못 써 보고 죽는구나 싶어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환갑이 되던 1989년 1월에 일흔다섯 살의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다. 남자가 싫어 일부러 나이 많은 노인네를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의처증과 구박이 하도 심해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말았다. 올해 2월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다. 현재 생계는 동생들이 매달 조금씩 보태줘서 그걸 가지고 살고 있다. 신고를 하고 이야기를 다하니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요새 나는 카츄사라는 곡에 가사를 바꿔 부쳐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마음대로 끌고가서 마음대로 짓밟아놓은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라. 어머니 아버지 들리시는지요. 이 딸들의 울음소리.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이 한을 풀어줍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렇게 빌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한을 풀어줍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을 감으시고 고이고이 극락에 가세요.'



우리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91년 졸업하시고 대학원에 진학하신 87학번 하경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저는 1987년도에 전자계산기공학과로 입학하여, 91년 졸업했습니다. 그 해 바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으며, 2년동안 석사과정을 마치고 93년 박사과정에 들어와 지금은 수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계속해 온 연구 분야는 병렬알고리즘으로 유관우 교수님의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학부 입학시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요?

☞ 제가 학부를 입학하던 87년은 선시험후지원이던 때였습니다. 이 때는 소위 '학력고사'라는 것을 먼저 치른 후 점수를 받고, 과를 지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과만 해도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홍보물을 들고 각 고등학교에 과를 소개하러가지만 그 때만 해도 거의 드문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과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지원했었던 것은 아니고, 과의 이름상(입학당시 과의 명칭은 '전자계산기공학과'였음) 비전이 보이고,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고,점수대도 잘 맞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 석, 박사 진학 동기는요?

☞ 학부 4년동안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서 막상 졸업을 앞두고 나니 취업을 할까 공부를 계속할까 등등의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빨리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제가 학부때부터 늘 관심이 있었던 '알고리즘'분야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 공부가 잘 안될때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Q 흑시라도 공부를 계속하는데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요?

A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길이므로 큰 후회는 없습니다.

Q 여자 후배들이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대학원을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적어지는 건 아마 학부생의 남녀 구성에서 여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86년,87년 입학시에는 여학생이 약 1/2 정도였습), 또 빨리 새로운 세계에 접하고 싶은 마음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원을 진학하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든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신중히 생각해서 잘 선택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학부에 있는 여학생들중에 이 쪽 공부를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이 분야를 공부하는데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데에 여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든 그 일을 해 냄에 있어 남녀의 차이보다는 개개인의 적성,성격,노력 등등의 것이 더 많은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있는 논문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조선대에서 온 글

##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성 이야기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홍수희

요즘은 정말 여자들의 세상이라고들 하더군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기던 직업이나 과들도 해가 갈수록 여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갈수록 편리해지고 시간을 줄여주는 가전기기들.

정말 예전과는 달리 사회에서 여성의 진출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인식도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가까이는 각 공학과들도 갈수록 여학생의 수가 많아지지만 여학생들의 편의나 인식들이 달라졌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이 무지해서? 아니면 아직도 여학생수가 남학생에 비해 적기때문?

직접 대화를 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남녀차별 인식도가 더 높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남성이고, 사회적 환경등에 의해 여성들을 차별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수가 많은 자연대나 인문대보다, 공대와 같은곳에서 여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들이 많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여성들의 적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학생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은 대학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저술로 또는 단체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하나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요?

또 직장과 같은 곳에서 여자가 승진하거나 일이 잘 되었을 경우 남자들 보다 같은

여자직원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여자가 선거에 후보로 나가면 여자유권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어느 여자 연예인이 갑자기 유명해지면 그에따라 불어나는 스캔들, 스캔들.....

여기에는 모두가 잘 아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남아선호사상, 아주 착하고 여자답게 있다가 좋게 시집가거나 바라는 집안의 분위기, 단순히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광고들,여자는 큰 일을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좋은 것은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난 여자잖아요’ 라며 몸사리는 경우라더군요.

저는 좀 더 우리 여성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여자이므로 남자들보다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우리는 인간이며 아주 먼 석기시대부터 남자들과 함께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잘났어도 혼자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여자가 아무리 힘이 없고 못났어도 여자들없이 사회가 발전하진 않았습시다. 어떤 일이있든지 자신이 여자라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며 인간이란 생각으로 요구하고 함께 한다면,여자는 못하는 세상이라고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한 여성 운동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함께하며 고민한다면 ‘남녀 차별’이란 단어는 사전에서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 나의 추억의 거울 들에게...

어제 나는 졸업환송회에서 너희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초를 들고 돌면서 너희들을 만날 때마나 남학생 후배들, 선배들과 달리 동질감이 느껴졌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은 아니리라.

1학년때의 서먹함과 호기심으로, 2학년때는 졸.폐를 총괄하면서, 3학년때는 곧 나도 저 자리에 서리라는 생각으로 참석했었다.(너희들은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제 밤 드디어 등근 두 원중에서 안의 원에 서서 나의 모습들을 가진 너희들을 보았다. 난 너희들에게 단지 “강하게, 웃으며, 예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물론 너희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해오고 있으며 더 잘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말들이 지금의 내 기분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아낀다는 표현이 더 나올까?

그래, 차라리 이 짧은 글로 표현하지 않으려다.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소홀했던 시절들을 차차 갚아 나가려다.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려다.

정말로 강하게 웃으며 예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길을 그리고 후배들이 본받은 말한 길을 더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리라 믿어본다.

다시 만날 때 서로 서먹하지 않은 서로의 거울처럼 자랑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만나자꾸나.

늘 푸르고 싶었던 언니가...

92 김은정 씀

겨  
0

북대학교 공대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공순이가 되어 개 나리 꽃이 핀걸 꼭 네번 보았고, 아름다운 단풍이 5호관을 네번째 물들이고는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이 되어 버린 이 시점에, 나의 청춘도 그렇게 흘러갔다...

엄청난 기대반, 설렘반으로 시작되었던 나의 대학 생활은 현실을 조금씩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실망의 연속으로 다가왔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 다행이라 여겨지는 것은 그래도 짝꿍은 <철>이 들었다는 것이리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쪽으로 훑어봐도 후회뿐이라 여겨지는 4년간의 시간이었음에도 그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걸 알고 배웠음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또는 게으른 내탓으로 열심이지 못했음이 못내 아쉽다고나 할까.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못 챙겨준 대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궁색하게나마 찾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먼 훗날 이들과 함께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고이 간직하여 기억함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 한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성적 위주, 실적 위주의 생활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고 쉽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흔들림없이 살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확고한 신념(혹은 사람)을 필수적으로 갖춘다면 우리 사는 살이가 덜 어렵고 고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긋지긋한 공순이였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가며, 조금씩 달라질 환경에 걸맞게 변화될 나를 기대해보며 애타게 기다리던 입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심히 안타까워할 우리 92동기와 89선배들과 더불어 이렇게나마 이별의 아쉬움을 대신할까 한다.

# 우리들의 글

여기 우리들의 삶을,  
그속의 고민과  
또 의지를 엮어 봅니다.

## 여학생회 한학기씩 돌아보며

94 심현지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도 이제 3대를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대라는 곳에서 여학생회를 만드는 어려움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힘들겠지요. 소수이지만, 힘을 모을 줄 아는 우리과 모든 여학우들 덕분에 이제 3대를 접고 4대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다음 연도 1학기말까지 었던 여학생회 회기가 4대를 맞아 겨울방학부터 다음 연도 2학기말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회장은 4학기를 필한 자, 그러니까 3학년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는 여학생회를 위해 좀더 어려운 결심들을 하였습니다. 여학생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우가 계실 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여학생회는 회기가 한학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학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가득차서 방학내내 교양을 한다고 학교를 나오는 열의를 보이고, 학기초에도 하루주점때문에 굉장히 바빴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여학생회라는 조직에 대해 회의가 든 적도 많았습니다. 여학생들과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남학생들에게도 무조건 압박지르기만 했지 그런 여성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얘기해준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은 학우들이 여학생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 중에는 어떤 흠이 없을까, 무슨 일을 하기는 하나 하는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3살 밖에 안 된 여학생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주위의 것이 보이고, 문제들이 인식되는 시기에 섰습니다. 여학생회는 여학생만을 위한 단체인가? 물론 여학생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그 여성문제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성만의 문제



## *Attention...*

---

는 아니고 그점에서 여학생만을 위한 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학생회가 간부들만의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직 간부들조차 확실한 여학생회에 대한 생각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부가 아닌 여학생들은 더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여성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남의 일은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복지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여학생회의 역할이라면 '회'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중에 정말 여학생회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발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아닌 주위의 여러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성문제는 어떤 것인지. 입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학생회가 함께 해나가야겠지요?

여학생회는 학생회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회는 분명히 학생회와도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을 아직까지 잘 못해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사업을 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그 문제들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바쁘고, 일많은 한학기였는데, 3대 간부들 너무 수고했고, 고맙고, 여학우들과 사업을 같이 못해서 아쉽고, 더 깊고 많은 얘기들을 못해서 아쉽지만, 4대에는 좀더 나은 여학생회가 되리라 확신하고, 여학생회의 회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벽과 '탄압'에 부딪치는 여학우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 지금 당신은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95 서연경

3월달... 아무것도 모르는 풋나기 대학 1년생.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은 풋나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듯이 말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제가 풋나기로 보이시나요? 몇 달 후에 저는 '96학번 후배를 맞이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풋나기의 때를 벗지 못했다면 후배들에게 대학인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구요? 어느새 제가 많이 성숙해져 있고, 또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발전해 갈 것을 믿으니깐요.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20살 삶에 대한 주관, 자신에 대한 비판정신 그리고 소중한 만남들. 저는 요즘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의 모습말입니다. 메마른 사막, 황량한 겨울 들판... 이곳은 제가 서있는 곳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풍성한 가을 들판, 울창한 숲과 같은 풍경을 그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저의 그림은 현재진행형이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당신은 항상 투덜거리나요. 왜? 당신은 주위환경을 탓하나요.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자신을 바꾸어 보십시오.”

요즘도 이 말이 생각날 때면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은 모르면서 요즘도 전 가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를 지배한 것은 바로 저의 생각이더라구요.

저의 그림이 풍성해 질려면, 이제는 조금씩 고쳐야 겠죠? 1학년의 날들이 닳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서 가져 봅니다. 더 많은 배움에 대한 준비, 저를 기다리고 있을 소중한 만남에 대한 준비, 저를 깨우쳐줄 것같은 이야기들에 대한 준비를 하렵니다.

너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화가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에게 그

## *Attention...*

---

림의 풍성함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스스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무척이나 서툰 화가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의 서툰 기술로 삶을 그려갈테고요.

지금 저는 도화지에 그려진 부분과 아직도 그려나가야 할 많은 흰 부분 그리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

지금 당신은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 “대륙의 딸”을 읽고

94 강소영

이 책은 올 해 작품발표회 전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여 대강당에 갔다가 할 일도 없고 해서 복문의 서점에 가게 되었다. 이리저리 책을 구경하다가 영국 논픽션 부분 NCR상 및 작가 협회상 수상이라는 title이 붙은 ‘대륙의 딸’을 보게 되었고 나의 문학적 교양을 키워보겠다는 신념하에서 이 책을 사게 되었다.

책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은 중국이라는 대륙에서 창조말기부터 일본의 만주점령, 모택동의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저자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자 자신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중국여인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다.

작자의 외증조부는 마을의 하급 경찰관이었는데 입신출세를 꿈꾸며 딸을 지방 군벌인 장군의 첩으로 만든다. 작자의 외할머니가 되는 그녀는 하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수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데 6년후에야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작자의 어머니를 임신한다. 남편이 죽게되자, 본부인에게 딸을 빼앗기고 사창굴에 팔리게 된 그녀는 탈출을 하게되고, 친절하고 학식이 높은 의사인 사선생과 결혼하게 된다. 사선생 가족과의 불화로 만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일본의 만주점령, 국민당 임시정부, 1949년 공산당 승리로 끝나는 내전을 겪는다. 어머니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만주에서 공산당 지하조직을 위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마침내 게릴라 출신의 젊은 공산당원인 작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한다. 어머니는 가정보다 혁명을 우선하는 아버지와 의 갈등을 느끼면서 헌신적으로 공산당을 위해 일하다가 작자를 낳게 된다. 작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급으로 인해 특권층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지만 모택동의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에 의해 부모님은 수용소 생활을 하게되고 작자도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등소평이 등극하면서 영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 *Attention*

---

이 책은 기록문학이니 만큼 소설처럼 흥미롭다거나 재미있지는 않다. 가까우면서도 먼나라 일수 밖에 없는 중국에 대해서, 그들 국민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펼칠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작자의 외할머니와는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나의 세상보기

94 석상숙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세상을 본다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이미도 재어보고 저미도 재어 본다  
그리고 가끔 그 잣대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잣대마저 작고 평범하다  
나는 이 작고 평범한 거창하게도 이 세상을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재어보려 한다

별것도 아닌 것이 온 몸의 신경들을 팽팽하게 잡아당길 때가 있다.

오늘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버스에서 우연히 들은 ‘여자는 모르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부른 가수와 작사가에게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다) 노래였다. 노래의 내용은 대충 이랬다. “여자는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술을 마시는지. 여자는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지. 여자는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는지. 기타 등등” 메흐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사이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데 하마터면 “별 거지같은 노래 다 보겠네. 미치면 혼자 조용히 미칠 것이지 그걸 잘났다고 광고하고 다니나” 하며 그 만원 버스에서 소리라도 지를 뻔 했다.

그냥 지나가는 미친 개가 짖었거니 하며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나의 우둔한 머리는 거기서 멈추지를 못했다.

남자, 여자. . . .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두 단어이다. 과연 남성이란 무엇이고 여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웃기는 말같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이 세상의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물론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란 단지 육체적인 특성에서 오는 차이와 수십세기 어쩌면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학습되어온 사상이나 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면 어째서 남자와 여자는 이토록 차별받고 차별하고 사는가?

## Attention...

---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나는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을 조금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단/지/ 육체적인 특성에서 오는 차이와 이제까지 학습되어온 사상이나 문화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녀 차별이 그 원인에 비해 너무나 혹독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결코 이 차이가 가볍다거나 하찮다는 말은 아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당연히 남자가 우월하다는 지극히 무식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면 육체적인 특성에서 오는 차이는 굳이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거론하고 싶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번째로 말한 이제까지 학습되어 온 사상이나 문화의 차이, 즉 인식의 차이이다.

이미 학습되어진 것,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뇌리에 인식되어진 것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 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뇌리속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인식되어져 왔는지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먼저 첫번째 예는 기독교의 창세기이다. 내용 중에서 이브, 즉 여자는 아담, 즉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점이나 아담을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고 인류를 원죄에 빠뜨린 쪽도 이브, 즉 여자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를 볼 수 있다. (비종교인의 관점에서 나의 생각은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의 시대보다는 훨씬 후세에 쓰여졌으므로 창세기가 쓰여졌던 바로 그 당시에 이미 팽배해 있던 남성우월주의-아마 소극적인 것이든 적극적인 것이든 남성우월주의가 이 세상에 없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가 성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두번째 예는 절대자는 항상 남자로 나온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하느님이나 예수, 우리 민간 신앙의 하늘님이나 옥황상제, 불교의 부처 등 거의 모든 절대자는 남자로 나온다. 이것 역시 남성우월주의의 한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녀, 신랑 신부, 부모 등 남녀를 가리키는 거의 모든 단어는 남자부터 지칭함으로써 남존여비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Ladies and Gentlemen이란 말이 있어 서양이 더 여성을 존중한다고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Lady는 중세의 영주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고 Gentlemen은 신사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당연히 신분이 높은 쪽이 먼저 불린 것일 뿐이다. 그리고 직업이나 직책을 여자가 맡으면 꼭 '여'자가 붙는다. 이것 또한 여자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쯤하면 혹자는 또 그 흔해 빠진 피해망상증이 도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하건데 결코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억눌리고만 산다. 당하면서만 산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냉철하게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저변에 깔린 남녀차별 혹은 남성우월주의를 제외하고라도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남녀차별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결혼을 들 수 있다. 인간을 가리키는 많은 말들 중에 사회적 동물, 인지의 동물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인간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 풍속을 보면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집에만 파묻혀 있어야만 한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결혼한 직장 여성들도 많다고도 하지만 그 것은 순전히 여자쪽의 고집때문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여자의 사회적인 활동에 찬성한 사례는 드물다고 본다. 여자도 인간이고 엄연히 사회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은 이 본능마저 저지한다. 그렇다고 전업 주부의 유일한 세상으로의 창인 남편이 이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한마디로 여성은 사회전체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참기만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이런 유서 깊은(?) 관습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단 몇 년간 익혀 온 간단한 버릇도 고치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물며 수십세기에 걸쳐 인류라는 거대한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것이라면 고치기가 오죽이나 어렵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가만히 놔 둘 수는 없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남자라는 인간과 여자라는 인간의 사이에 놓인 벽을 헐어야 겠다. 벽돌 하나, 시멘트 조각 하나라도 좋다. 조물주가 만물에 남성과 여성, 양과 음을 만든것은 서로 무시하거나 대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은 동반자로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란 뜻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를 떠나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남녀 평등도 이루어 질 것이며 좀 더 살 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내 눈이 나빠 대상이 비뿔게 보인다면 대상을 비뿔게 놓아 내 눈에 맞추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내 눈을 고쳐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 옳겠는가?



## 정신대 할머니를 찾고

94 이현영

손씻고 나면 손이 시릴만큼 제법 추워졌다. 월동준비를 해야하는데 따뜻한 여우목도리가 필요하다는 XY, 늑대가죽이 필요하다는 XX가 많을 것이다. 그래. 여우목도리든 늑대가죽이든 능력대로 마련하고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졌을때 (혹은 능력이 모자라 좀 썰렁하더라도) 한번 돌아보자. 50년 세월을 चु게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

얼마전 우리는 대구의 끝,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 사시는 정신대 할머니를 뵈고 왔다. 항상 학업에 열심인 우리들은 서로 시간맞추기가 어려워 일요일 아침 할머니를 찾아뵈기로 했다. 할머니는 새벽에 성당에 가신다며 언제든 오라고 하셨다. 평소라면 한밤중일 일요일 아침 7시, 나는 씩씩하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껏 아침식사를 한 후 버스를 타러 갔다. 버스정류장에서 8시에 만나기로한 후배가 보이지 않는다. 8시가 되려면 5분도 안남았는데... 웬지 불안하다. 코리안 타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대학생이라고나 할까? 326번을 세 대나 보내고, 30분이 지났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포기를 하고 버스를 탔다. 326번 종점이라는데 혼자서 그 험난한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잠도 오질 않는다. 참고로 나는 대구로 온 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타보기는 처음이다. 아! 떨기는 떨다. 지난 봄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영남중학교 네거리를 지났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난 지금, 잇따른 대형사고들을 쉽게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대한민국 집단망각 증후군”이라는 말이 뒤통수를 치는 순간 사람들이 모두 내리는 걸 보니 종점인가보다.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다. 길건너 현지와 정임이가 지친듯 서있다.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신다. 아침은 먹었느냐고 물으시면서 밥 많이 하셨다고 하신다. 조금 어색해하는 우리에게 할머니는 커피와 과일을 주셨다. 한 시간 남짓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올해초 나라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주셨단다. 이사오고 나서 동장이 가져다준 태극기를 잡고 그렇게 우셨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편지도 쓰셨다고 한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 정신대문제에 대해서 보상은 필요없다고 한말이 일본에게 좋은 구실이 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전기고문의 흔적이 아직도 할머니의 손에 남아 있었고,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하신다. 아픈 곳이 많으신데도 재판이 있거나 일본에 가지게 되면 아픈것도 잊어버리신다는 할머니의 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말하려니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일본은 1991년 한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정신대 문제를 부인해왔었다. 학계의 조사결과나 발견된 자료들로 이제는 발뺌을 할 수도 없게 되자 민간위로금으로 가해자인 자신들을 미화하면서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할머니도 한 때는 위로금받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도 하셨다며, 지금도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시지 않는 할머니들이 계신다고 한다. 돈 몇 푼은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열 여덟살의 잃어버린 청춘과 명예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실때 눈물이 나올려고 해서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내가 쉽게 흘리는 눈물이 할머니의 고통앞에서 마음약한 감상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보내오는 얇은 잡지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일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으셨다. 우리 셋 중에 일본잡지를 읽을 만한 일어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고,잡지에 실린 할머니의 사진을 명칭히 보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나의 게으름에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작년 겨울에 일어를 공부해 보겠다고 책을 두권이나 사놓고, 몇 쪽 보고나서는 그냥 폼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번 하루주점해서 번 돈을 드렸더니 고생한 사람들 밥이나 차라도 사주라고 하시면서 다시 얼마를 주셨다. 손녀들이 많이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부모님께 잘 하라는 말씀도 하셨다. 받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 고맙게 받았다. 할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옷 잘 입고 다닌다고 비난조로 말해도 할머니는 가난하게 보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신다. 그 때 며칠후면 일본에 가신다고 하셨으니 지금은 일본에 계실 것이다. 건강하게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일어섰다. 할머니는 일요일인데 데이트도 해야되지 않겠냐며 웃으신다. 같이오지못한 후배들과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있을 '붕어'와 동기들과 다음에는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눈가의 주름에 눈물이 맺히던 것을, 밝게 명랑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다.

## 나름의 결혼관을 갖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라면 우린 결혼을 꼽는다. 여지껏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날들을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우린 주위에 흔히 젊은 사람일수록 독신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로 나이가 들면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다행히 나의 언니가 29세의 나이로 친구중에 유일한 한 명이 미혼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녀도 또한 철저한 자신의 인생관을 갖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결혼을 왜 하는가?

자신의 이상형이나 장래 희망을 생각하며 살듯 자신의 결혼관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연애에 대한 결과라 하고, 혹은 모두들 하나까 할수도 있다. 또 한 평생 혼자 사는것보다 둘이 의지하는게 낫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은 이런 이점만 있는게 아니다. 아내와 남편, 며느리와 사위 등 새로운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의무 또한 가중된다. 게다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 겪는 고통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결혼을 나의 언니 세대조차 목적의식 없이 막연한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 그렇다고 결혼하면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특히 임신과 더불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자신의 모습이 원망스럽고 결혼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린 무작정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결혼에 대해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나의 언니는 내가 고 3때 결혼을 했다. 언니에 대한 나의 기대는 대단했다. 난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었다.(그렇다고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니의 결혼은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다. 생활도 그랬다.

그런 어느날 언니는 결혼을 왜 했냐는 나의 질문에 웃다가 엄마가 서둘러서 한 결혼이지만 잘 살아서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느끼기를 바라게 살고

싶다고 했다. 이걸 언니의 결혼관의 대표적인 것이라. 그래 만일 우리의 어머니 들께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실까? 오히려 허무감을 주지는 않을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였으니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배우자 선택부터가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이왕이면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배우자가 중요하다.

둘째는 결혼의 공동목표이다.

결혼을 왜 하는가 하는 직선적인 필요의식이다.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있고 싶단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진정한 사랑을 해 보겠다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기왕이면 실현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런 결혼의 목표가 결여되면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며 파탄에 이르기 쉽다. 그러므로 확실한 자기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자.

셋째는 결혼 후의 생활 설계이다.

결혼식부터 노후 생활까지의 모든 계획을 말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자녀 출산, 양육, 여성의 직업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 물론 서로의 합의가 필

요하다.

넷째는 결혼 후 자아 성취이다.

나와 배우자의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 주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혼인에 의한 가족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가정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였으나 실제로 결혼관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결혼관이라 하여 네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모두가 한 줄기에서 나와서 구분 짓기는 어려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물론 강요라기 보다는 권유에 가깝다.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혼을 우린 아무 희망없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결혼관은 배우자와 상의하여 함께 실현해 나간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결코 웨딩드레스 입고 식을 올리는 순간이 아니라 수십년을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낯선 사람과의 삶을 명심하며 나름의 결혼관을 갖기를 바란다.

## 복학생이 보는 여학생

90 오형식

먼저 이 글을 쓰려니 앞이 막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협회지널 때 여학생회에 글을 써달라한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글 재주 없고 생각없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평소 남녀차별, 남성해방을 온몸으로 실천해 여학생의 적으로 분류되는 세계에서 어떤 글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전체 복학생의 시각이 아니라 제 개인의 시각으로 본 여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과 90학번은 여자동기가 3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학교에 다닌 사람은 2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때는 여학생이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제대하고 복학해보니 93학번부터 여학생이 무척 많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학생이 소모임팀장,과간부를 맡거나 여학생회가 생기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학생회나 여성문제 소모임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것 같지만 그 내용적,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여성문제,성차별 문제 등 여학생들이 공유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과가 남녀구분없이 취업이 잘 되는 탓인지 다른 과에서 3, 4학년이 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회에서 취업때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고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아직도 공대에서 우리과에서 조차 여학생이 소수이고 많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잘못되거나 왜곡된 상태를 여학우 스스로가 나서서 바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학생회가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위한 일일주점을 한 것은 매우 돋보이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스스로가 우리시대의 아픔이자 역사의 상처의 현장에 계셨던 할머니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여학우 스스로를 당당한 주인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학우 스스로가 사회,대학내의 성차별,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대학 그리고 남성을 바꾸어 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복학생의 눈에는 우리과 여학생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구습과 남녀간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진보적이라는 대학내에서조차 폐쇄적이고 고루한 것이 사실인데 과연 우리과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를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는지는 의문입니다. 과내 행사나 학교생활에서도 여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생들이 자신을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이 동기들에게 후배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남을 다독겨려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퍼우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이 뒤에서만 수고하는 입장이 아닌 남자들과 똑같이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말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입장이라면 여학우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게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기것만 챙기고 정작 필요한 때는 자기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모습이 책임감이 결여된 자세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추진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이 감정이 앞서 기분대로 일을 추진하거나 일을 핑개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중간에 주저앉거나 회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여학우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지만 이 복학생의 개인적인 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한쪽의 시각일수도 있지만 여학우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있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저자 윤가현)」을 읽고

# 남자들은 모두 미쳤 다!!!

94 이현영

**마**는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서울대 조교로 근무하던 우XX(27.여) 씨가 지난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서울대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과 신 교수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 요구를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93년 신 교수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94년 1심 판결에서 3천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다. ‘야, 눈길 한번 잘못 줬다가 3천만원 날리게 됐어’라면서 농담을 가장한 비아냥거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 달전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1심의 판결을 깨고 「“성희롱 즉 성적괴롭힘은 고용관계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 접촉과 언동이 있고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성적 요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명

백히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피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행위 자체도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만큼 성적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성희롱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선뜻 말하고 나서기가 어려워 그저 여자들은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내가 새내기라는 이름을 달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대학을 들어왔을 때, 우조교의 사건에 관한 대자보를 보면서

“당연한 판결이다. 저런 교수는 당장 해고시켜야한다”며 분개했었던 기억이 난다.

1심판결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고, ‘3천만원’을 유행시키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면 2심판결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과 함께 성희롱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책은 제목부터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이책의 제목만 본 어떤 선배는 이런 불은서적은 조심해야한다며, 이 책의 저자도 남자인데 그 남자도 미쳤지 않겠냐며 미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한다. 여성, 어찌고 저찌고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하여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는 남성들을 보게 된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남자들보다 더한 여자도 보게된다. 참 말도 많다.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성해방을 이야기

이 세상에 차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태어나고보니 단지 성별이 달라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자기의 지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차별받아야만 한다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성들의 피해의식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생각들의 홍수속에서 혼란함을 느꼈으며 내 삶을 내가 당당하게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 여성 남성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 책을 읽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세상에 차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태어나고보니 단지

성별이 달라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차별받아야만 한다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시각에 태어났음에도 단순히 성별이 다르다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가 다르다면 태어난 자체가 원통하지 않겠는가?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나서 수모와 멸시,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전형적

인 한국 남성으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이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온 남성우월주의가 나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고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왜 사는가’를 깊이 생각할수록 나를 포함한 한국의 남성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깨달았다.“



작가의 말에 공감하며 나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자신의 눈앞에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문제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여성이 있으며, “여성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남성들도 많은 것이다.

요즘 마음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간 큰 여성’은 없을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던 한 여인이 치한한테 지갑을 빼앗겼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딘가로 유인당해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떠하겠는가? 그 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녀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가로등이 없는 후미진 골목은 멀더라도 돌아가며, 혼자서 극장이나 공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밤에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기피한다. 대낮이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선 낯선자가 두렵고, 어두워진 후에 혼자 집에 있기가 불안할 것이다. 여자들끼리 여행이나 등산을 간다고 해도 부모들은 이를 극구 말릴 수 밖에 없다.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는 없으며, “여성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남성이 여성들을 이런 상황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매** | 춘은 필요악인가? 매춘은 거의 모두 남성들의 성욕만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여성은 흔했지만 여성에게 몸을 파는 남성은 매우 드물었다. 남성의 외도는 무방하지만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통념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들의 성욕은 여성들보다 왕성하여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해왔기 때문에 매춘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어 정숙한 부녀자들의 정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매춘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성접대부와 남성접대부는 동시에 존재시키는 것이 남녀평등인가? 매춘을 필요악이라고 정당화하는 남성들의 이기심에 기가 질릴 정도이며,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상품화 시킨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 여겨진다.

남성들은 왜 여성들보다 성욕이 왕성한가? 그러한 통념이 근거가 있는 것일까? 남성들의 지배속에서 살아왔던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렇게 쌓여진 문화에서 주입

받은 의식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여성의 정조는 중요시하면서도-자신의 부인의 정조는 중요시하면서도, 외도하는 남성들의 이중적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여야할까?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여자를 도와주려 접근했던 두 젊은 청년은 그녀가 술에 취해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우리 사회는 술 취한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할 것이다. 여자가 제 몸하나 가누지 못하고 남성을 유혹하여 사건을 만든다면서 참으로 칠칠치 못한 여자로 비난할 것이다. 남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 그남자가 고래고래 고함이라도 지르고 있다면 여성들은 일찌감치 피해 가야 할 것인데, 술에 취한 여자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건가? 이 문제 역시 남성의 성충동이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

읍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네 명은 학교가 끝나면 으레 함께 지내는데, 소주 몇 병을 사마시고 동네 외곽을 걷고 있었다. 해가 막 저문 저녁 시간에 한 여고생이 귀가하면서 급히 그들의 걸을 지나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남학생들은 그녀를 불러 세웠고 도망가려

고 하는 그녀를 강제로 야산쪽으로 끌고 갔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걸하며 반항하는 그녀를 그들은 주먹세례로 기세를 꺾고 집단윤간을 시작했다. 순서대로 한 명은 강간을 하고 다른 세 명은 교대로 경계를 서기로 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도 점차 사라졌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저지르고 있어 죄의식도 없었다. 우연히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아저씨가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그들이 잡혔을 때는 이미 두명의 남자가 강간을 끝내고 다음 친구와 교대하려는 참이었다. 경찰서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합의를 전제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학교 내에서 처벌한다는 선에서 그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약속대로 학교에서는 강간을 했던 두명은 무기정학에 그리고 차례가 돌아 오지 않았던 두 명은 유기정학에 처했다. 학교가 술렁거리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때 한 선생님이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망이나 보다 처벌당한 멍청한 놈들”이라고 시끄럽게 말하였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해당 학교와 부모의 간곡한 설득과 권유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악몽, 주위의 시선, 학생들의 소곤거림 때문에 더이상 생활을 못하고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가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문만이 그 동네와 학교에 퍼져나갔다.

한 여성의 인생이 파괴되었는데도 ‘명청한 놈들’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선생의 무책임한 말은 또다른 성폭력이다. 남학생들에게는 청소년기의 한순간의 잘못이라고 덮여지겠지만 한 여성은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짓밟혀야하는 것이다. 그 여학생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소곤거림 또한 우리 여성들을 억누르는 큰 짐인 것이다.

강간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된다. 본능적인 것이 아주 순수한 것인양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너도 속으로는 그렇지’하는 눈빛으로 떳떳한 사람들이 있다. 오로지 본능에 따른다면 그것이 짐승인지 인간인지 의심스러우며 스스로를 짐승으로 만드는 못난 짓이 강간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후에도 여성이 계속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할 것이고, 아주 이해심 많은 듯한 남자는 여성의 자기능력 개발이나 사회공헌을 이유로 들기도 한

다.

여성이 자기의 직업을 갖는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취업여성이 가사노동이나 자녀교육문제로부터 자유로울수만은 없는 현실이지 않은가?

가사일도 잘해내고 직장일도 잘해내는 수퍼우먼이 바람직한 여성상인가? 직장내에서 여성차별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말이다. 가사노동분담이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지만 직장여성에 대한 남편들의 인식과 사회전반의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이 경쟁의 시대에 수퍼우먼만이 살아남고 평범한 여자는 그저 말없이 희생하며 살아야하지 않을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수탉이 자꾸 시비를 건다. 평소에는 그런 시비에 대들고 다투는데 그날은 암탉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암탉이 오리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부정을 묘사하고 죄를 지었음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외도, 여성의 외도 이 또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은가? 아내 몰래 딴 여성과 성관계를 즐기고 있는 남성들 거의 모두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부족할뿐더

러, 남편의 의도를 하소연하는 여성에게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그런거라고 한 때 그러다가 돌아온다고 얘기하며 모르는 척 참으라고 말한다.

여성이 의도를 했을 때에는 남자와 달리 매우 큰 죄의식, 수치심에 시달린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당당히 아내를 힐책하고 이혼을 요구해도 어느 누가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의 의도에 관한 한 젊은 남성의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해서 여성의 의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지만, 남성의 의도는 가능합니다. 현대 남성들은 잠재의식적으로 성욕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므로 그것을 참지 못해 의도를 하게 되죠. 남자는 흔히 사랑하지 않으나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한번쯤 호심을 품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의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의 의도를 무슨 큰 문제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여성문제를, 동시에 남성문제를, 그러기에 인간의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이 당연시 되는 것이 그자체가 성폭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여성차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이겨내려는 여성은 없다고, 그래서 여성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상당히 뼈아픈 말이고, 어느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왜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딪치지 못할까?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멍청해서인가?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체념해버리는 것이 여성인가?

여성차별이 왜 생겨났는지,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해결점도 제시할 수 없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변화의 시대라고 말들을 하지만 인간들은 비슷비슷한 굴레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우조교사건’의 대법원판결이 기대(?)되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겨울이다.

## 개같은 날의 오후에 늑대들이 모두 미쳤나봐요.

-윤기현의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를 읽고-

94 김병준

선

거가 시작되었고 나는 공대학 생회장 후보로 나서게 되어 자연스럽게 총여학생회 후보들( 최이향 조진미 )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 동안 별 관심이 없던 여학생 운동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보들이 가지고 나온 정책도 듣게 되고 자연스레 그들이 얘기하는 '학내 성폭력 문제' 그리고 '미군들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동의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복지관에 붙어 있던 어느 사범대 한 학우의 자신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대상이 되었던 여학우에게 깊이 사과 한다는 내용의 사과자보 또한 내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선거가 끝나고 그동안 놓고 있었던 심리학 레포트를 빨리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고 책의 선택이라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

다. 그 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책을 소개해 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학내 성폭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의 문제에 대해.....'

라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은이가 여자 이름을 가진 남자 교수님이라는점,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느꼈던 나의 의문과 그리고 약간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 윤기현 교수님의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 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과연 이 책이 심리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지만 책의 재미(?)에 점점 빨려 들어 가면서 과연 심리학 교수가 쓴 글 답다고 느끼게 되었다.

만약 이 책을 내가 남에게 소개하는 짧은 멘트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쓰겠다.

'어느 한 심리학 교수님의 뼈뺀 세상 보기,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 느낄때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책

'이라고.....

이

가현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아직 만나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 그분과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인 그분의 책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 라는 책을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꼼꼼하게 잘 읽어 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작가가 본 것은 이런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실태는 심각을 넘어 거의 도덕성 상실이라는 차원까지 가고 있다. 뿔테로 되라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의 그러한 성 폭력의 실질적인 이유를 단순히 남성의 성 심리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출발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생산 지향성 사회의 추구하고 여성의 지위 하락'의 부분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작가는 70년대의 우리나라 생산 지향성 개발 정책을 들면서 바로 그것이 자본가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에서 오는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을 줄이기 위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자연히 따르게 되는 여성의 저임금, 그리고 여성의 권위 하락으로 '남존여비'의 전통 사상 아닌 전통 사상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그러한 사상

으로 인해 사회에 나타나는 성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 당연한 귀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 우선의 정책이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지라도 결국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우리 사회의 농촌 파괴를 들고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으로 인해 농촌의 젊은 남성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고 여성인구와 그리고 노년 인구만이 남아서 농촌을 지키게 된다. 그러한 현상은 '남성은 일터에서 여성은 집안에서' 라는 진리를 만들게 되고 20년간 지속되어온 다수이지만 무력한 농민을 무시하고 희생시킨 결과로 소외된 농촌을 여성들만이 지키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기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폭력이 보편 정당화 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작가는 원인을 이곳에만 두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책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통 사회의 모습이 나타내어온 '남존여비', '삼종지도', '칠거지악'이라는 가부장제의 관습이 아직도 이어오고 있으며 그런 뿌리 깊은 전통 교육이 아직도 이 사회의 남성, 여성에게 남아 있으며 그것 또한 우리 나라 사회의 성폭력의 많은 부분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폭력의 가장

## Attention...

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강간을 봤을 때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을 강간한 행위는 강간 당한 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침탈이 아닌 그 여성의 소유자 라고 이야기 하는 남성( 여자의 남편 또는 아버지 )에 대한 침탈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모습은 강간 사건에 대한 재정적 보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강간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이야기는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저 여자는 내거야.”

라는 표현이 있다. 이 또한 남성과 여성을 소유와 종속의 관계로 규정짓는 전통 가부장 사회의 악습에 의한 잘못된 언어 습관이라 말 할 수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 한다.

윤가현 교수는 많은 부분을 들어 우리나라의 성폭력의 원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역시 심리학 교수라는 자신의 위치를 간과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 역시 많은 부분을 사회의 변화 모습이나 또는 전통 사회의 악습에 길들여진 이유로 성폭력의 원인을 규정짓고 있지만 그런 이유는 성폭력의 일차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다. 여성에게는 지조와 절개를 요구하고 남성은 매춘이라는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도에 의해 육

구를 충족 시킬수 있다고 말한다. 남성은 본래 그 습성이 늑대이다 보니 아무리 ‘절제’, ‘절제’를 외쳐도 심리적으로 더 크게 외치는 ‘성욕’, ‘성욕’이라는 외침을 참을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 혼전 순결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남성의 늑대 심리(?)를 고발하는듯 하다.

이렇듯 작가가 이야기하는 문제점은 근본적인 요인은 남성의 잘못된 여성 편견과 그리고, 여성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성폭력을 유발시키고 또한 정당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남성의 심리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작가는 전통 사회의 잘못된 악습 그리고 개발 제일주의가 가져온 사회 현상, 그리고 발전이 가지고온 기형적인 사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여준 많은 문제점에 반해 작가가 제시해 주고 있는 해결책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문제가 남성들에게 있으니 남성들이여 각성하라는 식의 논리 전개가 아닌가 한다. 이 책의 끝 부분에 작가가 생각하는 우리 나라 사회의 성폭력 실태를 해결 하려는 해결책이 이러한 것이다

우선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생각

의 전환, 예를 들어 강간의 책임은 강간한 강간범에게도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 그리고 남성의 성폭력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므로 용서 할 수 있다는 식의 사람들의 생각등 많은 부분 잘못된 생각을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강한자의 방패 또는 보호막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자체에 대한 방향 전환을 작가는 호소한다. 진정 법의 의미에 맞는 약자의 편, 아니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제정이 우선 되어야만이 아까 말했던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호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작가의 해결책에 동의는 하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아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남편, 학대와 폭력을 매번 당하던 아내의 반란이 일어나고, 아내는 매를 맞다가 피멍이 든 채로 아파트에서 뛰쳐 나온다. 아파트 주위에서 더위에 지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고 급기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대 전쟁이 일어난다. 아내를 학대 하던 남편은 몰매

를 맞아 죽고, 싸움이 일어나던 곳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살인자가 되어 옥상으로 도망가고 그들을 체포 하기 위해 기동대가 파견된다. 그 때 마침 자식에게 구박을 받던 할머니가 옥상에 있다가 자신의 삶을 비판한 나머지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이 항의 집회와 그리고 성적인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고 전국적인 회오리 바람이 일게 된다.

참으로 우스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의 대강의 내용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폭력이 일차적으로 비치나 감독이 진정 이야기 하는것은 남성의 폭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 신문에 나온 이 영화의 평에서 어느 한 평론가는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는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사회 전반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으며 여성 문제는 그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페미니즘의 영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그 영화는 분명 페미니즘 영화였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성 학대, 불륜, 게이 문제등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권위 상승과 그리고 이 사회에 잘못 나타나고 있



는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실낱한 비판을 풍자와 유머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영화평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보는 문제점이 그 '개같은 날의 오후' 라는 영화에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말해 들것은 내가 이야기할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성폭력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기에 미리 앞서서 밝혀둔다.

그 영화에서 동네 전기 수리점을 하던 아저씨(물론 부인이 버젓이 있는 유부남)가 어느 미망인의 아파트에 수리하러 가서 섹스를 즐긴다. 나는 즐긴다라는 표현을 썼다. 왜냐하면, 그 남성의 강제적인 요구에 물론 문제가 있으나 그것이 분명히 나쁜 일임을 아는 그 여성도 성행위를 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즐긴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남성은 뻔하다. 수리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미망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미망인은 욕구가 많을 것이므로 강간을 해도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적반하장격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남성만을 탓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성의 심리로 접근해 보자. 그녀는 아마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항상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동네에서 바람둥이라고 통하는 그 남성을 불러 강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너무 비약이 심한가? 아니다.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라는 책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남성들 만큼 여성들의 성적인 요구도 풍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파는 남자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성폭력의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수 있다. 강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인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수의 강간을 당한 여성은 그때 충분이 그럴만한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차림새였고 그것이 성적으로 가장 흥분된 상태에 빠진 남성의 결정을 정당화 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영화의 끝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박수를 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옥상에

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던 여성들은 이제 내려 갈 것을 결의 하고 떳떳하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밝히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은 아파트 난간에 모두 올라서고 밑에 미리 장치해 두었던 Air-Bag에 뛰어 내리게 된다. 이 부분은 많은 내용을 시사해 준다. 그들에게 아파트 옥상은 여성들만의 자치 공간이었다. 남성들의 폭압과 그리고 학대로부터 벗어난 자기들만의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벽, 여성들이 만든 편견,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옥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게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느 부인( 손 숙 )의 진실된 자기 삶의 반성이 그들을 깨닫게 만들었다. 남성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만은 말자. 우리가 먼저 벽을 허물자. 그런 생각이 바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다. 옥상 난간에서 잠시 기다림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남성들의 변화를 바라는 일종의 시위였으며 그들은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다.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벽을 허무는 과정은 남성들로 하여금 부끄러움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며 서로를 이해 하는것

만이 이 사회에 나타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이 이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있는 만큼 그것을 깨는것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때

“교수님 누워서 침뱉기 아납니까?”

라고 나는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성폭력의 주된 범인인, 남성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자신이 견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찬사를 보낸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 감추려는 습성이 있으나 작가는 그렇지 않았다. 신랄하게 남성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성이며 각성하라고 외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작가가 이야기 하는 것을 봤을때 ‘나는 아닌데’라는 식의 작가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부분이 얼핏 보이곤 한다. 정말 견혀히 비판을 할려면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리고, 너무 집중적으로 남성만이 변화하기를 외치고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까도 잠깐 언급 했듯이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작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회 성폭력의 원인은 바로 서로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이다. 문제가 그런데 남성들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여성들도 변화 하여야만 한다. 스스로의 입지를 부각시키고 남성들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약한 존재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시대가 남긴 잘못된 사상인 것이다. 이는

여성들 또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작가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결국 승부에 있어서는 나의 패배이다. 이 글의 맨 앞에서 내가 말한 이 책의 소개 맨트에 내가 쓴 말은 나 자신이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뜨끔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속으로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 자신을 정당화 시켰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의 공감을 사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나는 작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교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같은 남자

로서 많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들을 이해하고 여성들 또한 우리 남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영큼한(?) 심리에 나도 놀랐고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았다. 며칠전에 인문대 한 여학우로 부터 받은 질문이 생각한다.

“공대회장님, 강간의 충동이 일어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성들이여 각성하자. 그리고 바뀌자!!  
우리 세상은 너무나 삐딱하다. 하지만 삐  
딱한 세상을 삐딱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진정 올바른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들..... 그리고 여성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강간을 하고 싶으면 나는 해버리겠다.

” 라고.-너무 영큼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말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편견이 들었다. 아마 여잔데 어떨까?

‘남성들이여 각성하자. 그리고 바뀌자!!  
우리 세상은 너무나 삐딱하다. 하지만 삐  
딱한 세상을 삐딱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진정 올바른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들..... 그리고 여성들.....’

# 영화 이야기

올해는 영화 100주년의  
해였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홍행하였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내가 본 영화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89 홍상영

“구름속의 산책”의 키아누 리브스 보다도 “가을의 전설”의 브래드 피트 보다도 더 아름다운 남자는 “전태일”이었다. 박광수 감독의 새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짧은 생애를 아름다운 불꽃처럼 살다간 한 노동자 청년의 인간적인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과 근로기준법을 불로 태우며 공기 속으로 사라져 간 “전.태.일.”, 그는 쉬는 날 없이 작업에 시달리면서도 밥도 못 먹고 굶주려야 했던 어린 여공들을 위하여 교통비를 털어서 폴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서 집까지 뛰어가기를 밥먹듯 했던 뜨거운 가슴의 사나이 였다. 영화는 그런 전태일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적인 구성은 수배중인 운동권 지식인 김영수(문성근)가 “전태일 평전”을 써내려 가면서, 전태일(홍경인)이 살았던 70년과 김영수가 사는 75년이 교차 편집되면서 진행된다. 전태일의 시대는 흑백화면으로 김영수의 시대는 칼라화면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치밀한 계산에 의한 장면 전환이 돋보인다.

<칠수와 만수>,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트>, <그섬에 가고싶다>등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주었던 박광수 감독은 영화“전태일”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감독인 것 같다. 그는 80년대에 홍기선(파업전야, 가슴에 돈을 칼로 슬픔을 자르고), 김홍준(장미빛인생)등과 함께 <서울영화집단>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문제의식과 절제된 연출 감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감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장선우와 함께 영화의 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가 데뷔작인 <칠수와 만수>이후 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그들도 우리처럼>이 사회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써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베를린 리포트>는 통일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였으며, <그섬에 가고싶다>는 공룡의 칼날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6.25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진지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지나친 상징적 표현으로 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상업주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작가주의를 선택해 왔다는 사실이며, 항상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 왔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작들이 조금은 기대에 못미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의 다섯번째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만회하고도 남음직하다. 흑백영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내면서, 평화시장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으며, 적절한 미장센의 효과도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영화형식과 편집, 음향 등에서의 기술적 완벽함이 영화의 완성도를 드높이고 있다. 또한 적절한 캐스팅도 돋보이는 부분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헐리우드키드의 생애>에서 대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홍경인의 연기는 전태일을 연기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우리 영화계에 ‘홍경인’이라는 배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신인이면서도 연기력이 예사롭지않은 김선재라는 신선한 얼굴의 발굴도 큰 수확이며, 지적인 이미지로 고뇌하는 운동권 지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문성근의 연기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 “전태일”이 보여주는 가장 큰 미덕은 “영웅” 전태일이 아닌 “인간”전태일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대개의 이런 류의 영화들이 한 인물의 영웅성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면을 전혀 발견 할 수 없다. 아마도 감독은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 청년들이 바로 전태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김영수(문성근)가 여성노동자인 신정순(김선재)에게 “네가 바로 전태일이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가 든 김영수가 “전태일 평전”을 들고있는 90년대의 전태일을 만나는 장면은 아마 이러한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죽은 전태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태일이 있었기에 유신의 암울한 시기에도 우리는 노동운동의 태동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전태일의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유신시절과 5,6공시절을 거치면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7,8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의 출범 그

리고, ‘전노대’로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태일”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11월 11일에 출범한 “한국민주노조총연합(민주노총)”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영화 “전태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감격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벌써부터 시작되어서 크게 우려된다. 정권은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문성현 공동대표를 구속하는가 하면 권영길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이 세계적으로도 악명높은 악법이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을 ‘복수노조’로 규정하는 것은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산별 노조들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노총과의 구별을 뚜렷이 하고 있다.

어쨌든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노동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비록 정부의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실체가 인정될 것이며, 그것은 25년전 노동현실의 처참함을 죽음으로 투쟁했던 “전태일”의 정신이 오늘의 수많은 ‘전태일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전태일”이 만들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고, 노동자들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 “전태일”은 우리에게 잊었던 청년 “전태일”을 다시 추억하게 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철근을 어깨에 메고 서있던 모습, 어린 여공들을 대신하여 청소를 하던 모습,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을 때의 바로 그 모습, 흑백 영상으로 나타났던 이 모든 전태일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도 ‘전태일’이 될 수 없을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그를 추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밖에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불러 본다. 아름다운 청년 ! 전. 태. 일. ! 당신을 사랑합니다 !

## 위험한 독신녀

감독: 바베트 슈로이터

주연: 브리지티 폰다, 제니퍼 제이슨 리, 스티븐 웨버

94 이진숙

엘리(브리지트 폰다)는 뉴욕에서 소프트웨어 일을 하는 지적이며 현대적인 여성이다. 이혼 경력이 있는 샘과 연애를 하던 중 샘의 실수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상심에 젖어 있던 엘리는 이웃 친구인 그래엄과 상의를 하던 중 룸메이트를 들일 것을 결정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원자들 중에서 결국 엘리는 헤더(제니퍼 제이슨 리)를 선택한다. 그녀는 어렸을 적 쌍둥이 동생을 잃고 난 후 정신병을 앓아왔으나 이를 숨기고 엘리의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리고 엘리와 똑같은 옷을 사입고 머리 모양을 따라하며 엘리에게 편집증적인 애정을 보인다. 뿐만아니라 엘리가 샘과 재결합한 후 자신에게 소홀하지 기르던 개까지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드러낸다. 헤더의 광기는 점점 더해 가서 결국 엘리와 자신의 사이에 끼어든 사람들 하나씩 처치하고, 이를 눈치챈 엘리마저 없애려 한다.

현대인의 고독과 광기를 잘 표현한 이 영화는 긴장감과 무서움으로 보는 사람을 빠져들게 만든다. 아주 작품성이 있다기 보다는 오랜만에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영화에 흥미를 붙이고 난 다음에 “바그다드 카페”를 보는 건 어떨까? 광활한 사막위의 ‘바그다드’라는 카페에서의 두 낯선 여인의 우정을 그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이다.



## 영화 동사서독은....

94 김명신

영화나 책에 대하여 글을 써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얼마전 5호관 101호에서 상영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고전물은 별로 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더구나 무협영화라니..하는 생각에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 난 뒤 나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이 영화가 종전의 무술영화와는 다르다고 할진 모르지만, 이제는 전형적인 무술영화도 보고 싶어질 정도니까 말이다.

우선 이 영화의 제목을 보자. “동사서독”에서 “동사” 황약사(양가휘 분)는 숨씨 좋은 검객이고, 그의 친구 “서독” 구양봉(장국영 분)은 사막에서 여관을 경영하며, 청부살인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구양봉은 원래는 검객이었다. 큰 검객이 되고자 사랑하는 여자를 외면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지만 결국 사랑의 상처로 돈만 아는 냉정한 인간이 된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 “자애인”(장만옥 분)은 그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은 채 떠나버리자, 그 다음날 그의 형과 결혼해 버린다.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죽을 때 까지 구양봉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비련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동사 황약사는 위대한 검객이다. 그는 매년 복사꽃이 피는 계절이면, 서독을 찾아와서 같이 지내다가 다시 떠나고는 한다.그는 여러 여인(친구의 부인:도화삼랑, 구양봉이 사랑하는 여인:자애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모습을 잊으려 하지만, 잊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살게 된다.

이 밖에도 황약사를 사랑하게 되지만 마음을 전하지조차 못하는 “모롱인/모롱연”(임청하 분)이나 (이 사람은 밤에는 여인, 낮에는 그여인의 오빠로 변하는 이중성격을 지닌다.), 아내(도화삼랑 : 유가령분)가 친구(동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자 아내의 결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맹무살수”(양조위 분), 구양봉을 만나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나 계란 하나를 받고 소녀의 복수를 해주는 검객인 홍칠공(장학우 분), 남편의 친구를 사랑하지만 곁을 떠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알게 된 “도화삼랑”(유가령 분), 그리고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서독을 찾아온 소녀 “완사녀”(양채니 분)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영화의 중심 무대는 사막에 있는 서독의 여관인데,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세월은 흐르고, 어느날 2년전 형수(장만옥)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양봉은 자신의 여관에 불을 지르고 떠나게 된다.

이 영화는 구성이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지 않고, 일의 진행을 나타내기 보다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회상하면서 회상의 장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구성이 주인공의 성격과 삶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된다.

사막의 여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 94년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대서사시를 그렸지만 배경도 볼만한 작품이다.

##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 와 페미니즘

95 박정호

얼마전 개봉되었던 이민용 감독의 [개같은 날의 오후]는 극장으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였다. 아울러 페미니즘을 표방함으로써 관객들의 여러의견을 불러 일으킨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운동의 바른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영화는 감독 이민용씨가 의도하던 안하던 간에 이 사회를 향한 억압받는 여성의 항변과 봉기를 다룬 영화이다.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영화 자체의 미적인 내용과 페미니스트 비평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서 나타난 페미니즘적 인식을 주로 살피기로 한다.

무더운 여름날, 아파트 광장에서 남편의 구타를 피해 달아나는 정희(하유미)와 그 일을 수수방관하는 남자들에 대한 분노로 여성들은 집단 구타로 정희의 남편을 죽게 만든다. 이 부분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연출로 영화 전체의 설득력을 저해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부터 감독의 연출력은 빛을 발한다. 여성들끼리의 갈등을 아파트 옥상이라는 한정공간에서 해소하고, 우연히 사건에 끼여든 두 명의 도둑, 그리고 경찰 기동대를 잘 연계시킨 재치와 유머는 이 영화의 흥행을 성공으로 이끈 이 영화의 백미를 이룬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마스크를 통해 정희 남편을 죽게 한 자신들의 행동이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한다. 결국 경찰에 의해 연행되지만 여성이 억압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용감히 맞서 뜻을 관철시키는 승리자였음을 시사하며 이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 영화는 사회 어느곳에서도 쉽게 풀 수 없었던 여성들 울분을 풀어주는 선동적인 영화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을 포함한 어떠한 이

데올로기도 기본적 도덕과 가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단 구타에 의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나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나 후회는 나타나지 않은채 오직 그 집단 행동이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할 뿐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투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만 한다. 남성은 여성과 함께 공존해야 할 다른 성일 뿐이다. 페미니즘은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평등을 주장할 뿐 여성 상위 또는 서로간의 대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몇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이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출연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 또한 영화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자칫 무거워지기 쉬운 내용을 감독의 독특한 재치와 유머로 그려낸 나름대로의 잘된 작품이기도 하다. 흔히 코메디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오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영화는 극장문을 나설 때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발췌글 몇 편을 실었습니다.  
즐겁게 읽고 깊이 생각해봅시다.

##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굴해 씨는 참담한 기분을 지울수 없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싶었다. 아무리 직장상사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잘난것도 아닌 현나영 대리가 조금 전 결재 서류를 내팽개치며 한 말 때문이었다.

“남자들이란, 장가나 가지 뭐하러 직장에 꾸역꾸역 기어들어오는지 몰라.”

이 말을 들은, 같은 사무실의 남자 사원들은 모두 울분을 느꼈지만 하루 이를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투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었다. 어굴해 씨는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선배들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겪고 보니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자기도 부모님들이 남자가 대학엔 들어가서 뭐하냐는 구박 들어가면 어렵사리 대학 와서 남자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선배들 말을 듣고 3학년때부터는 서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영어와 상식에만 매달려서 여자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굴해씨의 친구들 사이에선 어굴해씨의 취업을 곱지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굴해 씨는 1미터 80센티의 키에 수려한 눈매, 짙은 눈썹, 건장한 체격으로 학교 다닐때 부터 여선배들의 군침을 흘려온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굴해 씨는 연애 한 번 잘못했다가 장가도 못 갈까 봐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었지만 쉽사리 사랑에 빠지지도 못하고 4년을 보내온 터였다. 하지만 어쨌든 입사 면접에서 어굴해 씨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군대 동기가 못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노라 분해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학교 다닐때 돈들여서 헬스클럽 다녀서 군살 빼고 웃을 때도 멋있게 웃는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와선 장가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차피 이 직장도 장가가면 그만 두어야 할판인데, 자기실현은 고사하고 매일 복사난 시키질 않나 여자들 은행 심부름을 맡기질 않나 심지어 입사동기인 서정연 씨는 자기 생리대까지 약국에서 사달라는 판이니 열불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언지하에 그런 부탁을 거절하자니 저 남자는 장가가긴 다 틀렸다는니 별소리를 다 들으니 안 할 수도

없는데다 같은 입사동기 남자들 가운데는 자진해서 “자영씨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커피 뽑아드려요?” 그러면서 아양을 떨니 그런 걸 문제 삼는 남자들은 아예 성격 파탄자 내지는 비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로 낙인 찍혀 회사 안에서 좋은 신부감 얻을 생각을 애시당초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 사원들이 노골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며 자기가 당황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것이었다. 여사원들의 음담패설은 어굴해 씨가 어쩔줄 몰라하면 더 강도가 심해지고, 어굴해 씨가 그만하라고 화라도 낼라치면 또 성격이 이상하네, 농담도 못하네, 어찌구 그러면서 발뺌하고, 막 웃어대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자기들끼리 술자리에 가서 저 남자는 날라리네 걸레네 어찌구 떠들어대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선배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신경쓰지 말고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그저 다소곳하게 있으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일인가.

그래도 말로 하는 것은 나은 편이다. 세숫대야와 몸매가 좋은 덕분에 어굴해 씨는 온갖일을 다 당하는 것이다. 입사 면접때도 중역으로 보이는 40대 아줌마가 느물느물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가 하면, 최진실 대리는 노골적으로 술 한잔 하자며 자기를 데리고 가서는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외박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30대 중반의 김미숙 과장은 결재서류를 넘겨 주면서 은근슬쩍 손을 잡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슬쩍치고 가며 어굴해 씨가 놀라 쳐다보면 씩 웃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쪽팔려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룰수도 없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분을 못참고 가서 따졌더니, “아니 이 남자가 어디 와서 행패야? 이게 누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래?”하며 잡아떼는 데는 당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료 남자 사원들도 어굴해 씨의 처지를 이해 하기는 커녕 ‘네가 꼬리를 치고 다녔으니 그러지’하는 눈길로 썰려 볼뿐이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몸을 비벼대는 처녀들 때문에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 회사 여사원들은 자가용으로 기분 좋게 출근해 욕구를 해소 못해서 그러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장가갈 때 해

야 할 지참금마련때문에 붓고 있는 적금도 있고 직장가진 남자 좋아하는 요즘 여자들 취향때문에 그만둘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에선 여자 눈총에 피우지 못하니 욕상에 올라가 담배나 한대 피워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욕상에 올라가니 환기통 저편에서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영 이상해서 몰래 가보니 입사동기 김현수 씨가 영업담당 이사인 김순자 씨와 짝한 신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애구 못 볼걸 봤다 싶어 들어가려는데 그만 이사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애구 낭패다 싶어 황급히 뒷걸음질치는데 갑자기 발 밑이 허전하더니 으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어굴해 씨는 욕상에서 곤두박질 쳤다.

“어굴해 씨 일어나세요..... 무슨 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자 커피 드세요. 아까 세시에 커피 빼다 달라고 그러시고선.....”

어굴해 씨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회사 사무실의 시계는 오후 세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앞에는 미니 스커트를 입은 서정연 씨가 자판기 커피를 받쳐들고는 교태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 꿈이었구나!’

어굴해 씨의 와이셔츠는 온통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정연 씨 커피 고마와요, 으..... 다음번엔 제가 빼다 먹을게요....”

-<여성이야기주머니>에서 발췌한 글



##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나는 여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결점은 '겸손 콤플렉스'라고 본다. 많은 일하는 여자들이 어딘가 이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어딘가 죄송스럽다는 콤플렉스를.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이런 콤플렉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일의 본질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을 주저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주저하는 것, 자신의 포부가 어떠한 것임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것.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기를 주저하는 것, 이런 주저증들의 근저에는 '겸손 콤플렉스'가 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유명한 말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겸손콤플렉스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여자들은 참 일을 일로 하기 어렵다.

나는 이 겸손 콤플렉스 때문에 하마터면 정말 능력있고 잠재력 높은 한 후배를 놓칠 뻔 했다. 항상 조용히 자료정리와 조합과 카피쓰기를 잘 하고 세밀하게 일을 챙기는 것으로 내가 평가하던 친구인데, 좀더 주도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서 그 친구를 제외시킨 것이었다.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자리가 하나 더 생겨 그 친구를 쓰게 되었는데, 그 친구 없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싶게 일을 잘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내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 너무 겸손하니까 그렇잖아. 좀 나서야 눈에 띄이지? 아무튼 미안해요!"

이 일 이후로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니 겸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 '책임의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항상 앞에 나선 남자들을 도와주고 눈에 안 띄이는 일을 챙겨주고 하다보니 자신을 내세울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자들은 이것을 잘도 이용하고 있었다. 남자들을 대개 다른 남자들에게 요청하면 거절당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쉽게 요청한다. 그 남자들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이 그 요령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그랬고 아내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쌓인 경험이 여자는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터득한 남자들이었다. 하물며 여자끼리도 좀 귀찮은 일은 여자들에

게 부탁한다.

나도 이것을 수없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프리 자문 역할은 물론 자료 협조 요청, 사람 수배하는 일, 일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 등등, 과연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일 안 가리고 나한테 부탁을 할까 싶게 '어시스트(assist)'를 요청한다. '어시스트 역할은 하되 크레딧(credit:일의 책임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말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받기도 한다. 남자들끼리 수직적으로 얽혀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무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그들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의리 역시 통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요청이 상당히 불쾌하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 상호 의리가 없는 관계에서는 "Just say no!(‘노’라고 말하자!)"를 철저히 지키기로. 의리란 사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므로. 그리고 또 나의 역할이 확실치 않은 일은 전력투구할 수가 없으므로 '노'라고 말하자고. 그러나 일단 '예스'를 한 일에는 진흙탕 속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챙겨보자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겸손 콤플렉스를 이겨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본능'을 이기고 '현모본능'으로 키워 가야 하는 싸움도 만만치 않다. '엄마'가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것은 사회훈련이듯이 말이다.

나는 여자들에게 말한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되라. 겸손은 하되 겸손콤플렉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여자가 되라!

----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중에서

# 양케이트

여자가 본 여자,

여자가 본 남자,

남자가 본 남자,

남자가 본 여자 best five 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읽다보면 가슴이 뜨끔할 때도 있을

텐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또 한참 읽다보면 뿌듯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여자가 본 여자

- 싫다 -

- 1 화장이 진하거나 옷차림이 심한 女
- 2 책임감없는 女
- 3 남학생만 챙기는 女
- 4 잘난척하는, 지애기만 하는 女
- 5 공주병인 女
- 기타 밥 많이 먹는 女  
특하면 기분나쁘다고 분위기 잡는 女

- 괜찮다 -

- 1 남을 위하는 女
- 2 성실한 女
- 3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女
- 4 깔끔한 女
- 5 잘 웃는 女
- 기타 힘세고, 씩씩하고, 튼튼한 女  
생활에 여유가 있어보이는 女

여자가 본 남자

- 싫다 -

- 1 말 함부로 하는 (욕하는) 인간
- 2 잘난척하는 인간
- 3 지저분한(침,가래 뱉는 공초버리는 수염안 깎고 다니는) 인간,
- 4 담배 많이 피는 인간
- 5 주색을 심하게 밝히는 인간
- 기타 여름에 위에 런닝만 입는 인간  
독서실에서 2시간 놀고 10분 앉아있  
는 인간

- 괜찮다 -

- 1 남을 잘 챙기는 사람
- 2 청결한 사람
- 3 성실한 사람
- 4 친절할 사람
- 5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
- 기타 수업시간에 먼산 바라보는 모습이 멋  
있는 사람  
“밥 먹으로 가자”하는 (밥 안사줘도)  
사람

남자가 본 여자

- 싫다 -

- 1 자기 치장에 치중하는 女
- 2 술주정하는 女
- 3 담배피는 女
- 4 잘난척하는 女
- 5 공주병인 女
- 기타 말보다 주먹,발이 먼저 나오는 폭력.  
정말 싫다.  
배꼽티 입고 배꼽 가리려는 女  
밥 남기는 女  
덩치크면서 수줍음타는 척하는 女

- 괜찮다 -

- 1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女
- 2 밥 사주는 女
- 3 볼 때마다 웃는 女
- 4 열심히 활동하는 女
- 5 돈낼때 같이내는 女
- 기타 뽀뽀 굶었을 때 밥주는 女  
웃을 혈렁하게 입는 女  
부유하면서 부유해보이지 않고 가난  
하면서 가난해보이지 않는 女

## Attention...

---

### 남자가 본 남자

#### - 싫다 -

- 1 잘난척 하는 男
  - 2 담배를 마구피는 男
  - 3 색을 밝히는 男
  - 4 지저분한 男
  - 5 말에 분별이 없는 男
- 기타 압삽하게 눈치보며 행동하는 男  
시도때도 없이 허리춤 추는 男  
손에 발가락 붙은 男  
말길 못 알아 듣는(일명 '사오정') 男  
택도 아인 아가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男  
당구칠 때 후루크만 치는 男  
공시렁공시렁 대는 男

#### - 괜찮다 -

- 1 남을 잘 챙기는 男
  - 2 자신감에 차있는 男
  - 3 항상 편안하고 여유있는 男
  - 4 씩씩한 男
  - 5 분위기 파악 잘 하는 男
- 기타 거울 속에 있는 男  
맨날 당구 물리는 男  
미팅에서 나보다 더 폭탄인 男

## 편 집후기

한 학기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편집후기를 3줄을 써야되는데 ... 한 줄은 어떻게 채우지.

드디어 3줄짜다. 끝

-정원-

한 학기 동안 생활문화부원으로 일하고 난 지금 한 일은 별로 없지만

기억에 남는 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언니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이 제일 좋았다고나 할까.

-윤경-

벌써 아쉬운 1학년 생활을 마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여학생회지 내는데 내가 한 일이라곤 연경이한테 글 받은 것 뿐.

연경아, thank you. 그래도 여학생회지가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되어서 마음

한 구석이 뿌듯하다. 이제 나도 2학년이 되고 후배들이 들어오겠지? 애들아,

빨리 와라. 밤 사주개.

-명진-

## Attention...

---

여학생회지를 끝으로 제3대 여학생회 임기도 마감되는구나.  
언제나 후배들은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생활문화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번 더 맺어졌던 윤경어와 명진에게 너무 보여줄게 없어 미안하다 말과  
앞으로도 활기차게 대학생활 하라는 당부들 전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회장님과 간부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은..

-연정-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호프도 애보고, 모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해 본  
재미있었던 여학생회였던 것 같다. 우리를 이틀 다음 여학생회는 더욱 더  
포근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후배들 화이팅.

-진숙-

2주일만 있으면 겨울방학이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다. 그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무슨 일든 애나 가는 과정이 중요인데, 막상 여학생회지는 나오지만 이 속에  
담겨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모든 그생애고 그말고 그러네요. 언니야 겠죠?  
그를 보내주시길 조선대 여학생회에 감사드립니다.

-씩씩한 누구누구-

##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칙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1. 학문적 진리 탐구를 추구하고,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3. 전체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집행하여 자주성을 고양하며,
  4. 상호협동을 통해 과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업) 본회는 학술사업 및 각종 문화사업을 한다.
-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과에 재학중인 학부과정의 모든 여학생으로 한다.
- 제 5 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여학생총회에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을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항할 권리를 가진다.
- 제 6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1. 회칙을 준수하고,
  2. 회비를 납부하며,
  3.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제 7 조(조직) 본회는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 제 2 장 여학생총회

- 제 8 조(지위)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제 9 조(권한과 기능) 여학생총회는
1.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토의-승인한다.
  2. 재정 예결산안을 보고 받고, 감사-승인한다.



## Attention

---

3. 여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본 회의 업무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은 회원 1/4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 조(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소집 5일전에 여학생회장이 공고한다.
- 제 11 조(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나 회원 1/3이상의 동의를 있을 때 여학생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2일전에 소집사유를 명시, 공고한다.
- 제 12 조(의결) 여학생총회는 회원의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때는 부결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 13 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 제 14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여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로 구성된다.
- 제 15 조(임무 및 권한)
  1. 본 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한다.
  2. 본 회의 전체 예산을 심의, 검토, 조정, 편성하여 여학생총회에 제출한다.
- 제 16 조(의결) 운영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운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 제 17 조(소집) 여학생회장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 18 조(임기) 각 구성원의 임기에 따른다.

### 제 4 장 여학생회장

- 제 19 조(지위)
  1. 여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여학생회장의 유고시 동일학년 여학생대표가 업무권한을 승계, 대행한다.
- 제 20 조(임무, 권한) 여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각 집행부서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3. 여학생총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진다.
  4. 본 회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대표성을 띤다.
  5. 차기 여학생회장 선출의 의무를 가진다.
- 제 21 조(임기)

1. 여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 당해 동계방학을 시작으로 다음해 2학기 말까지로 한다.
  2. 단 임기 만료 후 차기 여학생회장이 없을 때 차기 여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여학생회장 의 임기를 연장한다.
- 제 22 조(지위 보장) 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제 5 장 집행위원회

- 제 23 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 24 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여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집행부서 부장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부원을 둘 수 있다.
- 제 25 조(체제 및 업무)
- 1.학술기획부 : 학술 활동을 통한 회원 교양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제반 사업에 관한 기획 및 공개 보고를 담당한다.
  - 2.생활문화부 : 행사 제반 사항에 대한 문화사업을 담당한다. 각종 선전활동을 담당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항을 담당한다.
  - 3.재정부 : 본 회 내외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6 장 재정

- 제 26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여학생회비,특별회비,기타 학내외 지원금으로 한다.
- 제 27 조(회비)
1. 여학생회비는 학기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비 지출은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 28 조(회계년도)
1. 회계년도는 여학생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2. 전 항의 회계년도는 2학기로 나누어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 제 29 조(재정감사) 재정 예결산 보고서를 기초로 본 회의 예결산 감사를 여학생총회에서 실시한다.

## 제 7 장 선거

- 제 30 조(원칙)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 제 31 조(피선거권) 여학생회장은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 제 32 조(선거시기) 본 회의 여학생회장 선거는 임기만료 1달 전까지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 Attention...

### 제 33 조(선거방법)

1. 여학생회장은 회원 1/4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고, 회원 2/3이상의 투표로써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 회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2/3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4. 임기 만료후 차기 여학생회장이 선출 되지 않았을 때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현 여학생회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4 조(보궐선거)

1. 본 회의 여학생회장이 사임, 탄핵으로 인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고,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권한 대행 체제로 본 회 운영을 해나 가며 운영위원회에서 여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 제 35 조(선거 관리 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직전 학기 학년의 여학생대표 4인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서 선출한다.
4. 선거 관리 위원회는 여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선거후 1주일 이내에 접수, 심의, 처리한다.

## 제 8 장 회칙 개정

- 제 36 조(발의) 운영위원회 본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의 할 수 있다.
- 제 37 조(공고) 여학생회장은 투표 1주일 전에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8 조(의결) 여학생총회에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제 39 조(공포) 여학생회장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한다.

## 제 9 장 부칙

- 제 40 조(효력)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1 조(관례 및 시행 세칙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기타 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 3대 컴퓨터공학과

# 여학생회 일꾼들



여학생회장 : 94 심현지

학술기획부 : 94 이현영 95 황정원

생활문화부 : 94 김연정 95 김윤경 김명진

재정부 : 94 이진숙

발행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  
편집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 학술기획부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번지